



탐방

## 직원간 화합·회사 발전의 초석

### 자립경영 정착의 해 만들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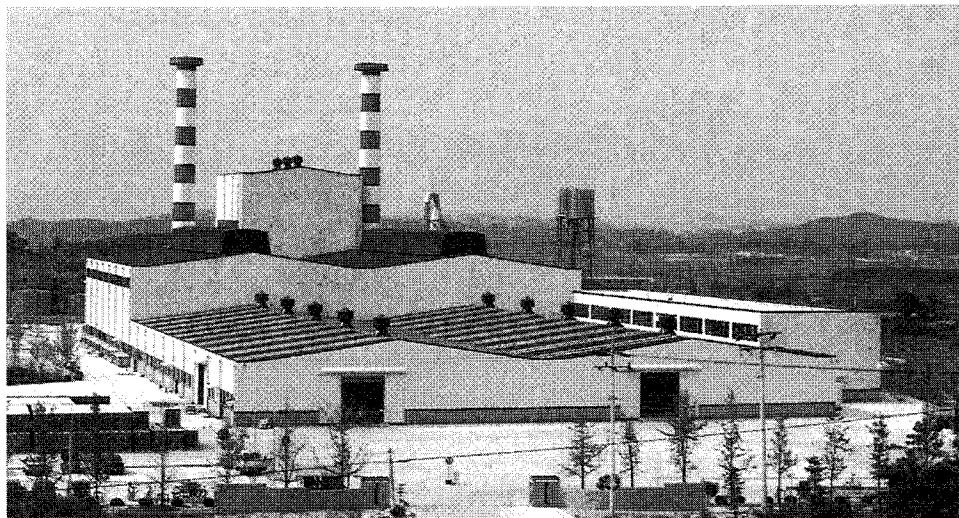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재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분야별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여러 용기 중 재활용과 재사용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유리병업계에서도 충남 천안에 위치해 있는 안성유리공업(주)은 단연 재활용시스템이 두드러져 보이는 업체이다.

1971년 신흥유리라는 상호로 서울 신림동에서 처음 공장가동에 들어갔던 안성유리공업(주)은 수원공장 설립까지 이른다. 하지만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제조업체와 주거지역의 분리 과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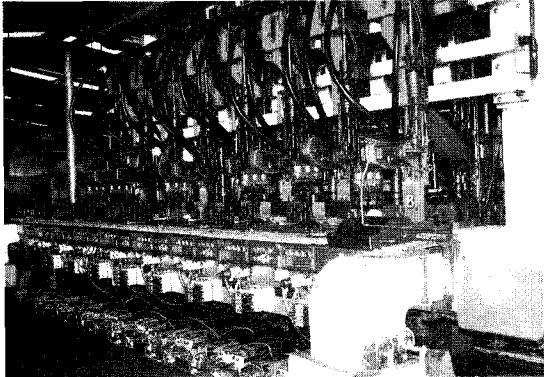
서 1985년 서울공장과 수원공장을 합병함과 동시에 1일 생산량도 90톤을 증설하는 등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후 성장을 거듭하던 중 1990년에는 천안에 (주)종성유리를 설립, 제2로를 증설가동하여 1일 합계 200톤의 생산캡파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수원공장 역시 환경오염문제로 인해 외곽으로의 이전이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되었고 결국 지난 96년 10월에 (주)종성유리와 합병해 지금의 천안공장으로 이전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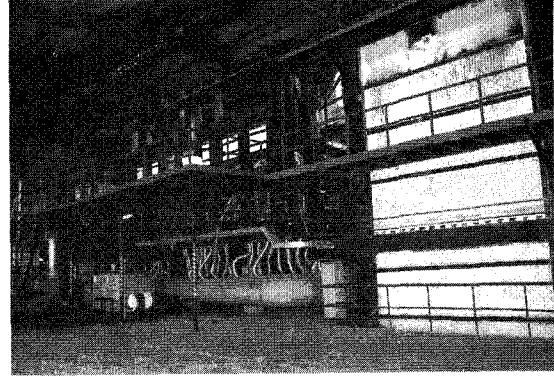
총 두개의 로를 운영 중인 안성유리공업(주)은



▶ 안성유리공업(주)  
천안공장 전경



▲ 안성유리공업(주)의 제병공정



▲ 5월 보수작업에 들어갈 제 1로

현재 1일 220톤의 생산능력을 갖게 되었으며 활발한 생산활동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97년부터 시작된 IMF 한파는 안성유리공업(주)에도 불어왔고 98년 3월, 2개의 로중 1개를 운영 중지시켰다. 더불어 직원들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단행이 이루어져 100여명 정도의 인원감축이 이루어졌다. 50%의 인원감축과 생산을 하고 있던 로의 가동을 일시 중단함으로써 위기를 넘어선 안성유리는 그 해 8월부터 불을 꼈던 제2로에 다시 불을 지피는 결단을 단행했다.

전반적으로 좋지않은 상황에서 안성유리의 2로 재가동은 업계의 우려를 자아냈다. 하지만 업계 전체의 생산량 감소와 인원감축 등을 통한 구조조정은 제품 수급의 불균형을 가져왔고 이런 상황에서 안성유리 제2로의 재가동은 시기적절한 것이었다. 임직원의 노력과 함께 안성유리는 1999년도에는 경영상 흑자달성을 이룩하여 현재 정상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성유리의 주요 생산제품으로는 의약품 포장용기인 제품병, 드링크병, 건강음료 등이 있으며 이를 용기는 우수한 자외선 차단효과로 의약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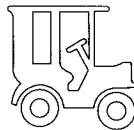
변질 우려를 제거하는데 최적의 용기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과 색상을 가진 주류병과 청결과 위생면에서 최적인 식품병 그리고 각종 특수병 등이 주문생산되고 있다.

안성유리공업(주)의 모든 제품은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폐유리와 원자재 사용비율은 약 80대 20으로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사용되는 폐유리들은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폐유리를 수집해 납품해 주는 업체 3곳에서 제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활용 제품의 수집단계의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폐기량의 70~80% 정도만 수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나머지 20~30%는 땅속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생활환경 하에서 소비자의 의식전환도 필요한 문제라고 정해영 대표이사는 이야기했다.

제품 생산의 전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안성유리공업(주)은 컨트롤룸, 자동제병과정, 서냉시



タバ



▲ 안성유리공업(주) 컨트롤 룸

설 등을 갖추고 있다.

생산설비자체가 과정별로 직선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작업환경의 효율성을 더하고 있다.

전체 생산과정에서 인력이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검사과정은 컴퓨터시스템을 통한 2번의 검사와 1번의 외관상 결함을 직원들이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품에 대한 꼼꼼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후화된 제1로는 오는 5월부터 보수작업을 통한 새단장을 준비 중이며 공장 내 집진시설은 악취나 먼지 등으로 인한 작업능률저하 부분들을 없애고 있다. 또한 최신 장비를 갖춘 검사실의 운영을 통해 생산공정 전반적인 상황들을 관리하고 있다.

유리병 생산업은 장치산업이라 기계를 멈출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3교대로 24시간 풀가동 중인 안성유리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성유리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임직원간의 화합은 볼링, 등산 등 5개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등학교부



▲ 안성유리공업(주)의 주생산 품목

터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는 복지제도는 직원 자녀들의 교육문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탈의실 및 기숙사 운영도 이루어지고 있다.

과당경쟁하는 업계 분위기 속에서도 현실성 있는 가격 설정과 더불어 불량률 감소로 인한 생산효율을 높이고 있는 안성유리는 자율성을 강조한 경영으로 인한 무노조 회사임을 자랑한다.

임직원간의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안성유리공업(주)이 IMF라는 한파를 이겨낸 것도 그동안의 임직원간에 맺어진 신뢰와 땀의 결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1만9천평의 부지에 제품 약적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무엇보다도 생산현장 내부의 청결함을 강조하는 안성유리는 올해를 뉴밀레니엄을 맞아 자립경영이 정착되는 해를 이루자는 목표를 가지고 뛸 계획이다.

그동안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종근당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지만 이제는 모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임직원의 마음이 담겨있는 캐츠프레이즈이기도 하다. [ko]

이선경 기자